

'95 새내기 새로배움터 자료집

다른 모습 독특한 어울림

서문

제 11대 중여학생회

배고픈 사람 다 모여 !!

여기 작표집어라는 밥이 있습니다.
맛과 영양가가 비례하지는 않지만
튼튼한 당신을 위해서는 꼭 먹어야겠지요?
만약 당신이 이 밥을 먹지 않는다면
당신의 장서가 시장기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글 순서

특종! 현장체험

증여익생회를 방문합니다

성

캠퍼스 커피, 나는 어떻게 생각한다
근예서의 남성과
단지 그대가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대학생활

왜 잘생긴 사람은 항상 좋은 사람이고 평범한 사람은 사악하지?
아침이슬로 보려 스페인의 벽에까지
저방자시제와 대학교육

문화

영화는 계속된다!!
오지 않는 봄

시작하는 출발점에 서서

봄, 새로움이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에 그 누구에게나
절실한 단어일 것입니다.

새내기들을 만나다는 설렘에
총여학생회는
언제나 활기차고 사람냄새가 물씬물씬 풍깁니다.

시작하는 출발점에 서서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은 순수한 열정으로 만나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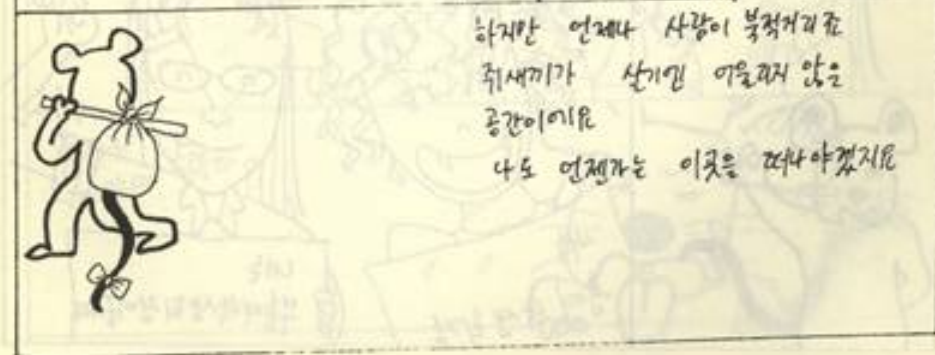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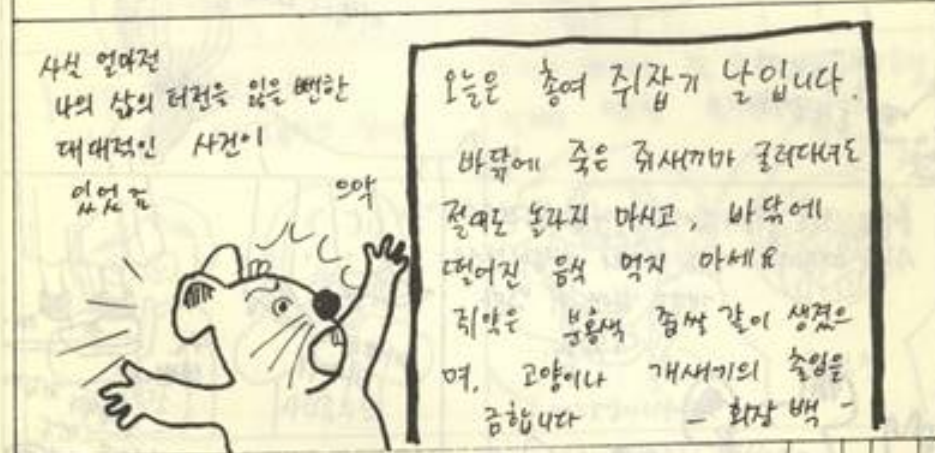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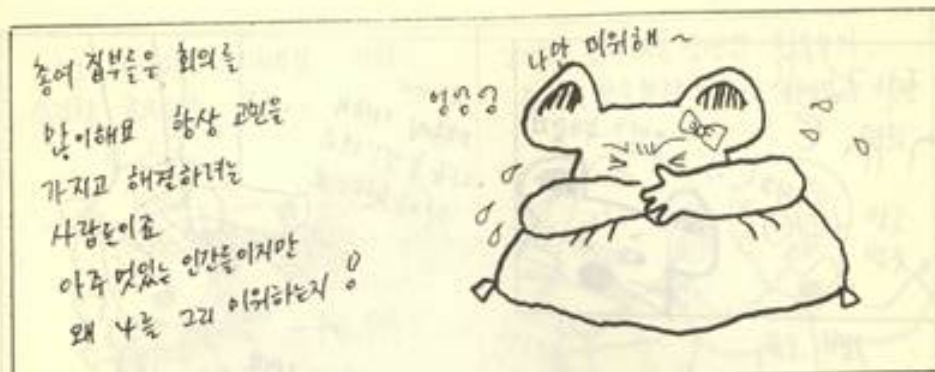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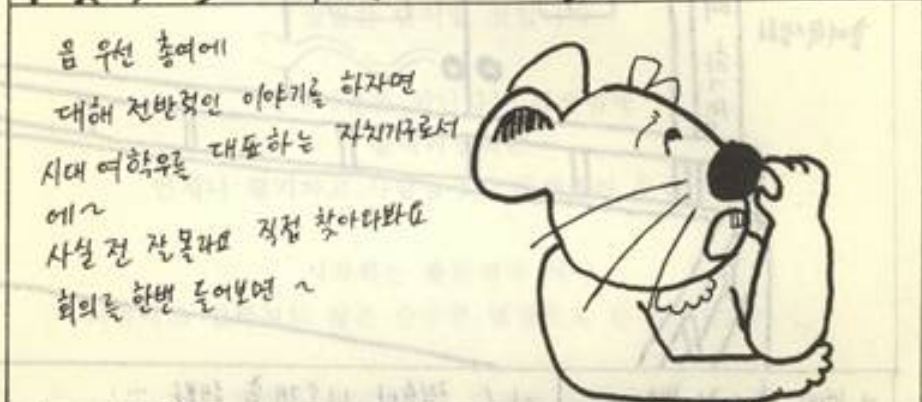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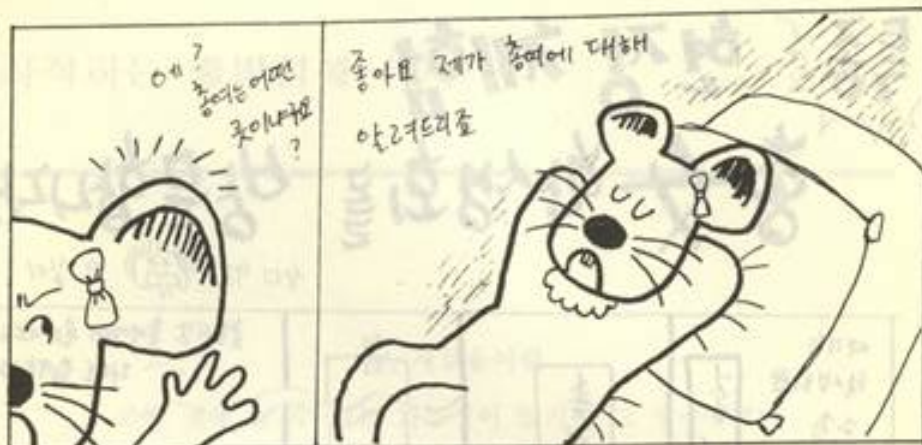
가슴을 풀어헤치고 열려진 가능성에
도전하는 새내기들이여!
그 옆에는 항상 총여학생회가 함께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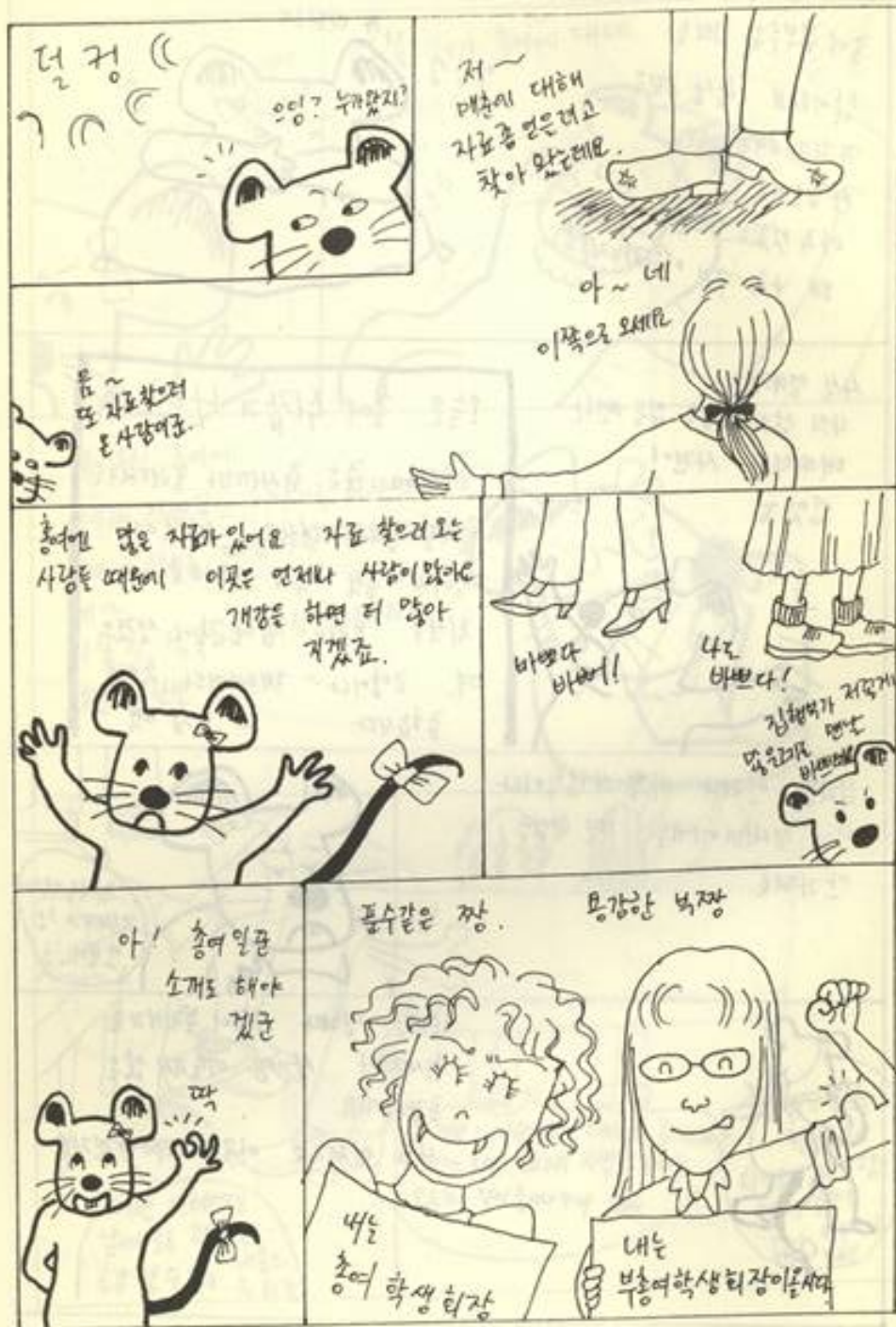
제 11대 총여학생회장 이영화
부총여학생회장 한정효

특종 { 현장 체험
중·여 학생회 방문합니다.

삼디 93  0 심이









총여학생회는 어떤 곳일까요?

두리번 두리번, 요리조리, 볼것도 많고 할것도 많은 요즘...

대학생활을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새내기들에게는 총여학생회라는 단어가 참으로 생소하게 들릴 것입니다.

새내기들이 속해 있을 각과에는 학생회가 있습니다. 학생회는 학생들의 자치조직이자 대표체이고 학생들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집니다. 과 학생회는 과 전체 학우들을 대상으로 활동하며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고 꾸려나갑니다. 총여학생회는 여학생을 구성원으로 하여 여학생의 입장에서 활동합니다. 사회속에서 여성들은 인간이기 전에 끊임없이 고정된 남성, 여성의 역할을 20년동안의 제도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교육 받아왔습니다.

자유로운 대학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규정된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한계점을 드러내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것들을 고쳐나가며 주체적이고 당당한 여성으로 자신을 가꾸며 자신에 대한 자각과 아울러 여성이라는 존재에 대한 자각 속에서, 건강한 삶의 주인이고자 하는 힘찬 의지를 같이 길러 나갈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총여학생회는 여성만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다른 성인 남성 또한 다른 형태로 문제점을 드러냅니다. 순바닥 뒤집기 같은 문제를 남성과 여성 함께 풀어가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된 학생회의 일반적인 역할을 같이 해나갑니다.

끊임없이 연구하는 학생회, 고민하는 지성과 열려있는 진보적인 사고로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예정어린 채찍과 당근을 기대하겠습니다.

관공여마녀

여자는 처음도 끝도 깨끗해야 한다조?

자신의 주기를 꼭 기억해야조

그런데, 이번달엔 예정보다 빠르다구요?

그럴 땐 커피값 100원을 들고

학생회관, 문리학관, 음악관, 배봉관, 도서관 화장실 중 가까운 곳을 찾아가세요. -보건소에선 안 준대요-

그리구, 만약 이 자판기가 도움을 안 줄 땐 총여학생회로 연락해 주세요.

제 11대 총여학생회는 이렇게 꾸며집니다.

Q : 모든 계층을 안고 서울서립대 문을 들어섰는데 뭐가 먼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학기에 무엇을 얻고 무엇을 해야 할까요? 총여학생회는 무엇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A : 신입생을 맞이하여 시립대 전체가 활기찬 모습입니다.
지금은 이것저것에 관심이 많을 때이지요.
총여학생회에서는 여러분의 이러한 관심을 모아서 다양한
참여의 공간들을 마련하고 1년 동안 함께 해나갈 것입니다.

■ 호신술 강좌

자신감있는 시대 여학우들의 삶을 위해 4~6월에 강습회를 마련합니다.

■ 영화제

한달에 한번 정기적인 영화제를 통해 삶을 여유롭게 합니다. 또 영화 비평모
임을 통해 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비평하며 영화에 안목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시대여성 한마당

시대 여학우들의 화합과 어우러짐의 자리를 따스한 봄기운이 완연한 5월에
마련하고자 합니다.

■ 기지촌 활동

혼자만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같이 사는 세상을 만듭니다. 한달에 한 번 동두
천 다비타의 집에 갑니다.
이중적인 성모순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 열린대학

함께 배우고 깨치는 자리! 성교육, 문화강좌 등 신명나는 9월에 개최합니다.

■ 앳살지

1년에 한번 발간되는 여학생 전문지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학내소식등
전반적인 흐름에 대한 내용으로 꾸며집니다.

■ 정보센터

찾을 곳도, 볼 것도 마땅치 않은 시립대 상황에서 제11대 총여학생회는 정보
의 체계화를 시도합니다. 항상 열려있는 공간! 시립대인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사회진출

누구도 비껴갈수 없는 취업문제와 여전히 불평등한 고용상태, 사회단체와의
꾸준한 연대와 사회에 진출하신 선배님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취업문제를 합
계 준비합니다.

■ 복지

여학우들의 쉼터가 학생회관 2층과 도서관 2층에 있습니다. 사용하는 권리와
관리하는 의무도 같이 해나가야겠죠.

■ 신문

학생회의 눈과 귀가 되고 서로의 의사를 교환할 수 있는 자리로 한달에 한
번씩 신문이 발행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총여학생회 신문을 더욱 알차게
만듭니다.

■ 확장실 선전

가장 편한 자세에서 하루에도 몇번씩 볼수 있는 선전물로 참신한 내용과 총
여학생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일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연구리포트

영화비평모임(제1기)

하루라도 영화를 안보면 온몸에 두드러기가 난다는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영화에 대한 서로의 색다른 시각을 이해하고,
영화비평이 대학문화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끌어 주세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요구와 참여는 독특한 빛깔의 총여학생회를 만듭니다.

우리 학교 여학생모임은 어떻게 ?.....

우리 학교 총여학생회를 두고 혹자는 '머리만 큰 기형아' 라고도 이야기 합니다. 여학우들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는 기구로서 가장 큰 단위가 총여학생회라면 좀더 가까운 체계에서 여학우들을 묶을수 있는 기반인 과나 단대에서는 여학우들의 기구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여학우들의 이해와 요구가 사다리를 밟고 차근차근 모아지기를 기대하는게 힘든 것은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또 이점이 현재 총여학생회가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잠깐 다른학교를 예로 든다면

건국대, 경희대, 한양대 등은 각 단대에 「단대 여학생회」가 존재하며 각자 독자적인 사업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직접 선거에 의해 당선되는것부터 시작해서 학내에서 여학우들의 목소리를 모아 총여학생회로 집결시키는것까지 학생회의 체계를 튼튼히 이루고 있는것입니다. 또 총여학생회와 과 여학생회를 이어주는 중간 허리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학교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여학생모임의 강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을 제대로 읽지 못했거나, 아니면 왜 필요한지,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와 같은 실질적인것을 뻔 겹대기만을 이야기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집이 새내기를 대상으로 하는것이니만큼 이 지면에서 모임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것보다는 현재 학내에 존재하는 여학생 모임의 형태와, 겪고 있는 문제점들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학내에 존재하는 과여학생모임의 형태는 친목도모, 여학생부, 여학생회로 세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친목도모의 경우는 과에서 여학생 수가 적은 경우에 대부분입니다.

소수이거나 혹은 여학생이기 때문에 겪게 되는 어려움들을 서로 토로하기도 하고, 졸업한 선배들을 초대해 사회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취업 준비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렇다 할 내용과 활동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몇몇의 회원들은 모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도 하고 체계가 어설프기 때문에 모임의 주체들은 많은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소개하자면, 회계학과, 경제학과, 건축공학과, 전자공학과는 여학생 모임 이라는 이름으로, 경영학과는 '네일클로바' 환경공학과는 '물바람'(수질, 대기오염을 의미), 화학공학과는 '여우사이' (여기서 우리의 사랑을 이야기하자) 전통과는 '해무리' 라는 이름으로 과 전체 여학생을 회원으로 합니다. 그 외에도, 수학과 'limit'(93학번) 전자공학과 '여주포'(92학번) 등의 학년별 여학생모임이 있습니다.

● ● ● ● ●

두번째로, 여학생부 로 학생회 체계내에 여학생 부장이 과 집행부로 활동하는 경우입니다.

과 내에서 자칫 무시되기 쉬운 여학생들의 요구를 올바르게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모임은 친목형태와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두렵이 이렇다 할 여학생들의 요구가 모아지고 있지도 않을 뿐더러 실제로 여학생부장들은 과 집행부로서 과내 일반 사업속에 매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학생부로 있는 모임을 소개하면 행정학과, 도시공학과 '여강'(여자는 강하다)이 있습니다.

● ● ● ● ●

세번째로 여학생회로 독자적인 운영 체계를 갖추고 있으면서 과내에서 예복협(예비역,복학생 협의회)과 함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입니다.

여학생 모임중 꽤 발전된 형태로 주로 여학생이 많은 과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환경 조각, 산업디자인, 영어영문, 수학과가 있으며 국사, 전통과가 올해 여학생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보면, 과에 중요한 문제에 대해 여학생회 차원에서 여학생들의 의견을 모아 직접 움직이는 과도 있는 반면, 여학생회 존재 자체에 구성원들이 필요성을 못 느끼는 과도 있는 등 다양하고도 폭 넓은 차이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과와 총여학생회의 중간고리인 단대여학생회로는 '문리대 여학생 협의회'가 있으며, 주체의 활발한 준비가 있어 올해 문리대 여학생모임 강화는 물론이고 어려움이 많은 현재 총여학생회에 또하나의 발전이 되리라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학내에 있는 여학생 모임들의 형태와,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들을 진단해 보았습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새내기 여러분들에게 여학생 모임 소개를 위한 목적으로 쓰다보니 문제점들만 나열하게 되고 해결방안까지 실지 못해서 아쉽지만 꾸준한 조사와 올바른 진단은 모임강화의 첫출발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부정적으로 생각될까 걱정되기도 하지만 현재 각 과에서 주체들의 커다란 포부와 구성원들의 의지를 보면서 긍정적인 95년을 바랍니다.

총여학생회가 함께 함은 물론이겠지요?

끝으로 올해 문리대 여학생 협의회장이 된 박정숙(92 국사) 학형과, 건축과 여학생 모임 장을 맡고 있는 김선미(93 건축) 학형의 인사말로 이 글을 마칠까 합니다 ● ● ● ●

새로운 설렘과 부푼 희망. 이 말이 그야말로 신선한 새내기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닐까요?

제가 누군지 궁금하시죠? 저는 '문리대 여학생 협의회'라고 해요. 이름이 조금 길죠? 그래서 그냥 '문리대 여협'이라고도 한답니다. 문리대는 다른 단대에 비해서 여학우들이 많다고 해요.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여학우 여러분들과 가까이 가고자 제가 존재하는 것이구요. 좀 크게 말씀드렸지요? 아직은 여러분들에게 생소할지 모르겠지만 각 과에는 여학생 모임이 있어요. (없는과도 있지만 만들도록 도움을 줄 거예요) 여기에서는 여러 전반에 걸쳐 알게 모르게 존재하는 여성 문제들과 TV광고나 매스컴에 나타나는 '성의 상품화'같은 문제들을 토론을 통해 공부합니다.

개인의 관심, 각 과마다 모아지는 관심을 모아서 제가 주로 하는 일은 '공개 토론회'가 주가 됩니다. 공개 토론회는 처음 시도하는 일이라 어려울지는 몰라도 학우 여러분들이 직접 얘기하고픈 주제를 정하고 회를 이끄는 것이어서 무척 의미 있다고 생각해서 시도하는 것이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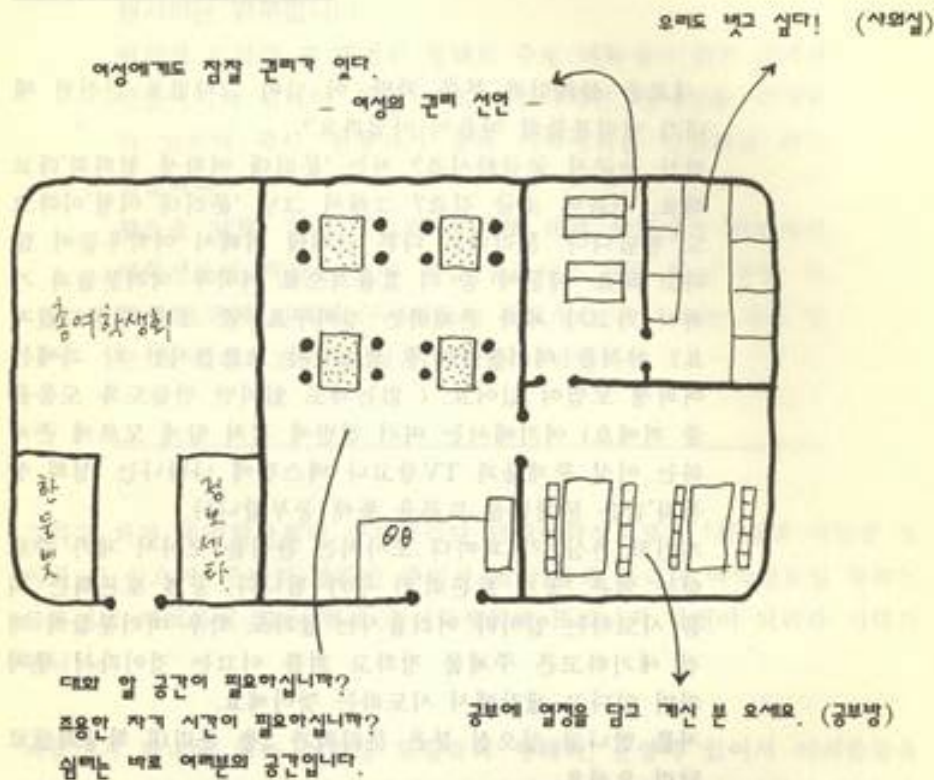
저를 만나고 싶으신 분은 문리학관 2층 문리대 학생회실로 달려 오세요.

건축공학과 '93 김선미

이질적인 단어들의 조각들은 문맥의 울타리에서 구체적이고 알맞은 의미(자리)를 지니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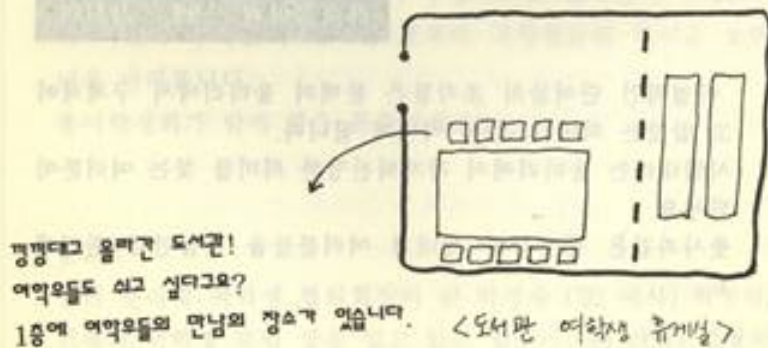
시립대라는 울타리에서 각자의 진정한 의미를 찾는 여러분이 되세요.

꽃사과같은 풋풋함의 새내기 여러분들을 하늘만큼 환영해요.



객습이 따뜻한 사람과 만나세요

- 심려 -



캠퍼스 커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전산통계학과 92 김준미

신기하다.
부럽기도 하다.
그러나 가끔씩은 배가 아프기도 하다.

내가 Campus couple 들을 볼 때 느끼는 것들이다.
나는 '만남'이라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1학년 때는 미팅도 여러번 했었고
농활도 다녔고 빈활도 다녔다. 그러나 사람들을 만나면 만말수록 빠져리게
느끼는 것은 처음의 호감보다는 나와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어려움이다.
이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생각과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러한 사
람들을 이해하고 사랑하기란 정말 어렵다라는 것이다. 특히나 남녀관계에 있
어서 흔히들 느낌이라고 말을 하는 그 정서가 딱 맞아떨어지기란 힘든일이
아닐 텐데...

모든 사람은 항상 누군가를 좋아한다. 아니 그러는 것 같다. 그러나 그 '좋아
함'이라는 게 둘의 감정이 된다는 것이 힘들다는 말이다. 그래서 수많은 사
람들이 짝사랑, 외사랑을 하면서 죄없는 술을 죽이기도 하고 일기장만 괴롭히
는 경우가 허다할텐데...

그런데 이렇게도 어려운 것을 너무도 쉽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학내 커플
들을 보면서 나는 신기함과 함께 대단함을 느낀다. 또한 사람이 자기 아닌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고 힘든 일과 즐거움을
함께 나눈다는 사실 자체가 부러운 일이다. 그러니까 내가 학내 커플을 보면
서 부러운 이유는 단순히 좋아하거나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사실이
라기 보다는 연애를 하면서 서로 변화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될 수 있기 때
문이다. 어쨌든 나는 연애를 안한다기 보다는 못하는 쪽에 가까우니까.
그러나 어느날 갑자기 나와 평소에 잘 알고 지냈던 사람들이 알고 보니 학
내 커플이더라라는 사실을 깨달는 순간 느끼는 상대적인 외로움과 당황함. 정
말 환영하고 축복해주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심하게는 섭섭함까
지도 느껴야 하는 것일까?

어느덧 대학의 최고 학년이 되어버린 나 자신에 대해서 깜짝 깜짝 놀랄때
가 있지만 어쨌든 3년의 대학 생활 속에서 주위 사람들의 미묘한(?) 변화도

적지않게 보아온 셈이다. 계속 내숭떨고 있다가 어느날 갑자기 전격발표식으로 사람들을 놀래키는 형, 처음부터 소란스럽게 티내는 형, 친구사이인지 연인사이인지 주위사람을 혼란스럽게 하는 형, 그리고 졸업후 결혼까지 이어지기도 하고 도중에 깨지기도 하는 여러가지 상황까지 ...

내 주위의 많은 커플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대강 이렇다.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누군가를 사귀면서 시야나 이해심이 더 넓어지기보다는 오히려 더 좁아진다는 것, 모든 관계들이 두 사람만의 서적이 되어버린다는 것이다. 무슨 말이나 하면 원칙적으로 본다면 연애라는 것이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사귀면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고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관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각자 살아왔던 환경이나 공간이 다른 두 사람이 서로의 (자신의) 공간이나 상황을 인정하면서 다른 사람(연애의 대상자)의 사회적 관계를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속에서 서로의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연애를 하는 사람일수록 더욱 열려 있어야 하고 그들의 삶에 제3자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말그대로 연애에 있어서만 제3자일 뿐이지 궁극적으로 이사회를 살아가는 동반자라는 인식을 해야 한다. 가끔씩 학내커플들이 어려울 때가 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나는 말그대로 제3자일 뿐이니까, 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연애는 사회적 관계이다'라고.

이것은 연애 자체가 두사람만의 의지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러가지 객관적인 주위 여건들이 필연적으로 연애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일례를 들면 보통 파내 커플은 취직 잘되는 과가 많다던데.... 그렇기 때문에 연애를 개인적인 것으로 치부하지 말아달라는 것이다. 물론 대부분의 커플들을 이 사실을 알고 있겠지만...

물론 내가 하는 말은 단순히 원칙적인 말밖에는 안된다. 구체적으로 연애의 모범이 어떠한 것인지도 사실은 잘 모르겠다. 또한 아직은 내가 내 생각을 검증해볼 기회가 없었기에 다분히 내 주관적인 생각일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이런 사립을 원한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완성된 결정체로서의 연애’



군에서의 남성화

국어국문 89 윤제권

“남자라면 군대에 들어가야지”.

말 그대로 이땅에 사는 남자라면 누구나 들어 본 말이다. 그리고 군대에 갔다온 남자라면 누구나 그런 말을 한다. 또 선을 보는 자리에서, 그리고 여자 친구에게 자신이 '국방부에서 보증한 대한민국 1등 남성(현역일 경우)'임을 내세워 진정한 남자는 군대에 갔다와야 함을 은근히 강조하곤 한다. 그러면 군대에서의 무엇이, 어떤 점이 남자를 남자답게 만드는 것일까. 어떻게 그런 의식을 갖도록 할까.

본래 써야될 내용은 나의 가족사이지만 '나의 남성화'란 측면에서 군대에서의 남성화를 가지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다. 이 글은 군대에서 남성화를 조장하도록 하는 일련의 일들을 개인적인 입장에서 다뤄보고 군대에서 일반사병들이 생각하는 여성문제에 대해 생각나는 대로 적도록 하겠다. 그리고 필자 개인적인 여성관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잠시 다루도록 하겠다.

군에서의 남성화

남자가 군대에 들어가는 것은 중, 고교 시절에 남자는 남학교에 여자는 여학교에 들어가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이다. 후자는 남녀가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차이를 갖는 것 즉 단순한 성별로 분리해 놓았다는 것이고, 전자는 사회에 속하는 여자가 아닌 남자만을 선택하여 따로 다른 환경에 두어 격리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면 군대에서 남성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군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군에서 시키는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병사를 '고문관'이라고 한다. 이 '고문관'이란 말은 일반 병사에 있어 큰 처벌으로 여겨진다. 또한 그 말을 듣게 된다는 것은 군생활이 힘들어지게 될을 의미하므로 군생활에 빨리 적응함으로써 이런 말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러면 군에서 빨리 적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가장 우선적인 것은 집단의를 갖는 일일 것이다. 내가 속한 중대하고도 추종적인 복종자세와 집단의를 가져야한다. 그런데 집단의식은 '내가 속한 1대대 1중대는 무조건 이겨야 한다. 2등은 필요없다. 군에서의 2등은 전쟁에서의 패배로 간주된다'등의 형식으로 나타난다. 나는 작거나 크거나 어느 집

단에 속해 있다. 그 집단은 다른 집단과 구분되고, 다른 집단은 협력대상이 아닌 경쟁 또는 적대관계에 있게 된다. 이런 의식이 집단이기주의를 가져온다. 이런 의식은 내가 남자이므로 여자란 집단과는 구분되며, 이것은 여자와의 차별이 있음을 시인하게 되는 요소이고, 또한 남성이기주의를 갖게 되는 과정일 수도 있다. 은연중 집단의식 속에서 남성과 여성을 구분시키는 것이다. 한편 집단의식은, 하나가 잘못하면 모두가 처벌 또는 피해를 입는 과정에서 집단구성원에 대한 동질감을 갖게 한다. 남자가 남자답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것을 같은 남자로서 창피하게 느끼고, '남자가 왜 그래?' 하는 생각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문제는 '하면 된다.'는 의식이다. 군대에서의 명령은 무조건 수행되어야 한다. 생각할 필요없이 시키는 대로 그리고 시킨대로만 무조건 하라고 한다. 못할 경우엔 해놓은 표시만이라도 내야한다. 내용보다는 형식이 우선시되는 것이다. 이것은 우선 해놓고 본다든가 무조건 부딪쳐 본다는 의식과 일면 상통한다. 가령 대중앞에서 노래를 부를 것을 고참으로부터 명령받았을 때, 자신이 잘 할 수 있든 못하든 우선은 앞에 나가서 노래를 부르는 시늉이라도 내야한다. 결코 수줍어하거나 뒤로 빠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무조건 남자다운 과감한 행동을 하도록 강요당하는 것이다. 또한 이런 점은 군대에서 겪게 되는 모든 것을 현실 그 자체가 중요하며 그것을 바꾸려는 노력은 아무 필요없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이런 점은 '참을 수 없는 것은 즐겨라'라는 군대용어로 표현되며 군대의 보수성을 드러낸다. 군에서는 순응하는 인간을 만들고 또 사회에서는 그런 인간을 원하는 것이다.

그외에도 군에서의 남성화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많다. 간단히 몇 개를 적어 본다.

'예, 그렇습니다. 어립니다.'

라는 말만 쓰게 하여 말은 하지 않도록 하는데 이는 남자는 과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군대에서의 스포츠는 남성미를 강조하고 남성을 강한 이미지로 부각시킨다.

'군대는 角이다.'

라는 말도 있다. 내용보다는 형식의 중요성을 나타낼 말이다.

'작전에 실패한 집단은 용서할 수 있어도 배식에 실패한炊事兵은 용서할 수 없다'

라는 우스개말도 있는데 이는 맡겨진 임무에 대한 철저한 수행을 나타낸 말이다.

이로 인해 맡겨진 일은 무조건 해야만 한다는 의무감이 키워진다. 그리고 자신의 현재 위치에 대해서 즉 현실에 대해 인식할 수 있는 계기도 된다. 당장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다른 일은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의무감이 장남 콤플렉스의 한 원인이 아닐까?

군에서의 계급의식은 남성화의 과정에서 결코 빠질 수 없다. 자신이 남보다 계급이 높으므로 아무것이나 시켜도 된다는 의식은 남성은 여성보다 우월하므로 여자는 남자 말을 들어야 한다는 의식으로 발전할 수 있다.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남성상이란 바로 사회성을 뜻하기도 한다. 즉 남자가 현실에 적용하는 사회화의 과정 자체가 가부장적 사회에서 남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과정의 일부인 것이다. 군대에서의 사회화 과정은 바로 가부장적 사회에서의 남자의 위치를 인식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남자는 군대에 들어간 이상 무조건 군대에 적응해야만 하고 군대는 계급적 사회의 축소판으로서 사회에 적용하는 인간으로 남자를 육성한다.

군에서의 여성관

군대는 사회와 격리되어 있다. 특히 여성에 대해 접촉할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군인은 여성문제에 대해 원초적으로 반응한다. 여성과 남성간의 문제는,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하는 식욕과 거의 동등한 수준에서 다뤄지는 것이다. 그러면 군대에 있는 일반병사의 여성관에 대해 살펴보자.

우선 군인은 여성의 현실에 대해서는 민감하다. 여성과 인간적으로 부딪치는 점도 없고 당장 자신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성의 사회적 위치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다. 다만 관심을 갖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여성보다는 상품화된 여성이다. 군인이 가장 접촉하기 쉬운 여성의 모습은 TV나 잡지 중에 나오는 여자의 모습이다. 군인들에게는 그저 '잘 빠졌네, 몸매 죽인다. 얼굴 이쁘네' 등의 말에서 나타나듯 예쁘고 섹시한 여자만이 관심이 대상이 된다. 그런 점은 연말에 애인사진 콘테스트 등에서도 나타나는데, 예쁜 여자가 최고이고 예쁜 여자를 애인으로 둔 남자로서 능력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군대에서의 여성은 존엄성이 거의 무시되고 있다. 단순히 흥미위주로 여성과의 성관계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동병이 부대에 전입하였을 때, 자신의 여자친구가 성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거의 필수적인 일이고 그런 이야기를 잘 하거나 많은 관계를 가졌다는 것은 고참으로부터 신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때로는 선임병에게 '아가씨'의 주소를 상납해야 될 상품이 되기도 한다.

군에서의 여성은 꼬셔야 할 대상이다. 많은 병사들이 휴가나 외출, 외박시 다방 아가씨를 꼬셨던 경험이 있다. 군의 여성관은 여성에 대한 호칭을 알아보면 쉽게 나타난다. 군대에서는 여성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아가씨'이다. 물론 결혼한듯이 보이면 '아줌마'이지만 군에서는 여성이 주로 성적 대상으로서의 '젊은 여자'로서만 파악되는 것이다. 심할 경우 여성의 성기를 호칭으로 쓰는 경우도 있다. /남자와 여자는 성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여자는 성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에 비해 열등하다/남자는

여자를 굴복시켜야 한다/여자는 없으면 서운하고 있으면 귀찮은 존재다/여자가 할 일과 남자가 할 일은 다르다/는 것이 군대에서의 통상적인 관념인 것이다.

이런 현상은 군사회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여성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신이 남성임을 더욱더 실감함으로써 나타나는 듯하다. 그리고 '고무신 거꾸로 신은 여자'에 대한 얘기 등을 군생활을 하며 많이 듣고 또한 그런 일들이 현실로 많이 나타나는데, 이에 대한 반발로서 여성을 무시하려는 경향도 보이는 것 같다.

본래 내 개인의 이야기를 써야 됴도 불구하고 대부분 내 이야기가 아닌 남 얘기하듯 써놓았다. 솔직히 말하자면 나도 그 사회의 일원이었고 대부분의 경우도 포함된다. 군에 있는 모든 군인들과 이미 전역한 사람들이 전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여성관을 가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군대에 갔다온 사람들은 자신이 그렇다고는 인정하지 않더라도 군대란 곳이 그런 곳이라는 것은 인정할 것이다. 나 자신도 군대에서 여성에 대해 함부로 말하거나 단순한 성적 대상으로 생각한 적이 있다. 그리고 군대에서 쓰던 '아가씨'라는 호칭이 제대한 지금에도 내 입에서 나오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여성관도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군에 있을 때에도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서만 파악한 것은 아니다.

나는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역할은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격이 약간 내성적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내가 남자를 대할 때와 여자를 대할 때는 약간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끼기는 한다. 그것은 여성을 무시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다만 나는 남자에 속해 있고, 상대방은 여자에 속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나는 아직 여자 친구나 애인이 없지만 비교적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싶다.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면 좋지만 사귀다가 다른 남자가 생겼다고 해서 그리 탓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것은 상대방의 선택이고 나 또한 다른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적어도 나에게 속한 여자라는 생각은 갖지 않겠다는 뜻이다. 나는 그런 모든 것을 남성과 여성의 문제가 아닌 인간의 문제로 이해하고 싶다.

내가 여성학을 수강하는 것은, 여성에 대해 또는 여성해방에 대해 알고 싶다가 보다는 동등한 인간으로서의 내 자신의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비선사 주

이 글은 우리학교 여성학 강좌인 '현대사회와 여성'에 제출된 report 중 하나입니다.

단지 그대가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어글해 씨는 참담한 기분을 지을 수가 없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 싶었다. 아무리 직장 상사라지만 자기보다 능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학벌이 뛰어난 것도 아닌 현나영 대리가 조금전 결재 서류를 내팽개치며 한 말 때문이었다.

"남자들이란, 장가나 가지 뭐하러 직장에 꾸역꾸역 기어들어 오는지 몰라."

이말을 들은 같은 사무실의 남자직원들은 모두 울분을 느꼈지만 하루 이를당하는 것도 아니라는 투로 그냥 넘겨 버리는 것이다. 어글해 씨는 대학을 졸업하여 입사한 지 한 달 밖에 안됐지만 선배들이 말한 것을 하나하나 겪어보니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 자기도 남자가 대학에 가서 뭐하냐는 구박을 들어가며 어렵사리 대학와서, 남자들은 취업이 어렵다는 선배들 말을 듣고 3학년 때부터는 서류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영어와 상식에만 매달려서 여자들도 들어가기 힘들다는 대기업에 들어가 이렇게 까지 수모를 당하는 걸 생각하면 전말이지 억울해서 견딜 수 없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어글해 씨 친구들 사이에선 어글해 씨의 취업을 곱지않은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어글해 씨는 1미터 80센티의 키에 수려한 눈매, 짙은 눈썹, 건강한 체격으로 학교를 다닐때부터 여선배들이 군침을 흘려 온 터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어글해 씨는 연애 한번 잘못했다가 장가도 못 갈까 봐 마음에 드는 여자는 있었으나 겉사리 사상에 빠지지도 못하고 4년을 보내온 터였다. 하지만 어쨌든 입사 면접에서 어글해 씨보다 훨씬 성적이 좋은 군대 동기가 못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떨어졌노라고 분해하는 것을 보면 역시 학교 다닐때 헬스클럽 다녀서 군살 빼고 웃을 때는 멋있게 웃는 연습을 평소에 착실히 해둔 보람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장가 간 친구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다. 어차피 이 직장도 장가가면 그만두어야 한느 판인데, 자기 실현은 고사하고 매일 복사나 시키질 않나 여자들 은행 심부름을 맡기질 않나 심지어 입사 동기인 서정연 씨는 자기 생리대까지

약국에서 사다달라는 판이니 열불이 나서 견딜 수가 없다. 그렇다고 일언지하에 그런 부탁을 거절하자니 저 남자는 싸가지가 없다느니 장가가진 다 틀렸다느니 별 소리를 다 들으니 안 할수도 없는데다 같은 입사동기 남자들 중에는 자진해서 “자연 씨 뭐 필요한 것 없으세요? 커피 뽑아드려요?” 그러면서 아양을 떠니 그런 걸 문제 삼는 남자들은 아예 성격 파탄자 내지는 비사회적 성격의 소유자로 낙인 찍혀 회사안에서 좋은 신분감 얻을 생각을 애시당초 말아야 하는 것이다.

그래도 그런 건 참을 수 있었다. 그런데 여직원들이 노골적으로 음담패설을 하며 자기가 당황하는 걸 즐기는 것은 도저히 인간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것이었다. 여직원들의 음담패설은 어굴해 씨가 어쩔 줄 몰라하면 더 강도가 심해지고, 어굴해 씨가 그만하라고 화라도 낼라치면 또 성격이 이상하네, 농담도 못하겠네, 어찌구 그러면서 발뻘하고 막 웃어대면서 맞장구를 쳐주면 지들끼리 술자리에 가서 저 남자는 날라리래 걸레네 어찌구 떠들어대니 정말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는 것이었다. 선배 남자한테 물어보면 신경 쓰지 말고 아무 표정도 짓지 말고 그저 다소곳하게 있으라지만 그게 어디 쉬운 일인가. 그래도 말로 하는 것은 나은 편이다. 세수대야와 몸매가 좋은 덕분에 어굴해 씨는 온갖 일을 당하는 것이다. 입사면접 때도 중역으로 보이는 40대 아줌마는 느물느물 자기를 데리고 가서는 집에 가지 말라고 하는 바람에 하마터면 외박할 뻔한 적도 있었다.

그뿐만 아니다. 30대 중반의 김미숙 과장은 결재서류를 넘겨주면서 은근 슬쩍 손을 잡는가 하면, 엘리베이터에서 부딪히면서 손으로 슬쩍 치고 가며 어굴해 씨가 놀라서 쳐다보너 씨 웃고 가 버리는 것이었다.

쪽팔려서 어디다 하소연도 못하고 집에 가서 이를 수도 없고 정말 사람 미치게 하는 거다. 그래서 분을 못 참고 가서 따졌더니 “아니 이남자가 어디와서 행패야? 이게 누구 가정을 파괴하려고 이래?” 하며 잡아매는 데는 당할 도리가 없는 것이었다. 그리고 동료 남자 사원들도 어굴해 씨의 처지르 이해하기는 커녕 ‘내가 꼬리를 치고 다녔으니 그러지’ 하는 눈길로 쳐려볼 뿐이었다. 가뜩이나 출퇴근 시간에 몸을 비벼대는 처녀들 때문에 짜증이 나 죽겠는데 이 회사 여직원들은 자가용으로 기분 좋게 출근해 욕구를 해소 못해서 그러는 건지 도통 사고 방식이 이해가 안갔다.

오늘 같은 날은 정말이지 회사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지

만 장가갈 때해야 할 지참금 마련 때문에 붓고 있는 적금도 있고, 직장 가진 남자를 좋아하는 요즘 여자들 취향때문에 그만둘 수도 없었다. 그래서 사무실 안에선 여자는총에 피우지 못하니 욕상으로 올라가 담배나 한대 피워야 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욕상에 올라가니 환기통 저편에서 입사동기 기현수 씨가 영업담당 이사인 김순자 씨와 편한 신을 벌이고 있는 게 아닌가. 예구 못 볼 걸 봤다 싶어 돌아가려는데 그만 이사와 눈이 마주쳐 버렸다. 예구 낭패다 싶어 황급히 뒷걸음 치려는데 갑자기 발 밑이 허전하더니 으악하는 비명소리와 함께 어굴해 씨는 욕상에서 곤두박질을 쳤다.

“어굴해 씨 일어나세요... 무슨 잠을 그렇게 주무세요? 자 커피 드세요. 아까 3시에 커피 빼다 달라고 그러시고 선...”

어굴해 씨는 눈을 비비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주위를 둘러보니 회사 사무실의 시계는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눈 앞에는 미니스커트를 입은 서정연 씨가 자판기 커피를 받쳐들고느 교태로운 웃음을 짓고 있었다.

‘아 꿈이었구나!’

어굴해 씨의 와이셔츠는 온통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

“서정연 씨 커피 고마워요. 으... 다음엔 제가 빼다 먹을게요.....”

여성 이야기 주머니(독두) 中

왜 잘생긴 사람은

항상 좋은 사람이고 정의의 사자이지?

전자공학과 91 남상혁

내 친구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항상 미팅에서도 뽀빠를 잘 맞고 폭탄제거반에 잘 들던 이친구.

한번은 PC통신을 통해서 한 여자를 알게 되었다. 어느날 우연히도 들어간 대화방에서 알게된 그여자. 친구는 순간 긴장했다. 세상에..... 이렇게 이야기가 잘 통할 수가... 바로 이런 여자야.. 나를 이해해 줄...

둘의 이야기는 무척이나 잘 풀렸나보다. 그래서 대화방에서 밀회를 즐긴지 일주일... 드디어.. 만남의 날!!

친구는 있는 멋, 없는 멋 다내서 옛날의 실패를 곱씹으며 굳은 각오를 하고는 약속 장소로 나갔다. 아직 그녀는 오지 않은 모양이다. 그녀는 어떻게 생겼을까?

"장미를 들고 오는 여자가 저예요"라는 말을 기억하며 카페의 입구를 힐끔거리던 그때!!

문여는 소리와 함께 나타난 장미꽃을 들고 들어선 여자!

"오! 주여!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여태 상상해오던 그녀의 모습은 여지없이 무너져 내렸다. 실망의 연속...

짜달막한 키에 완전히--- 얼굴은 으아---

그날 그친구는 그녀의 외모에 대한 실망에 암울한 시간을 보냈다.

친구는 이야기를 끝내고 술잔을 한숨에 들이켰고 나는 그냥 웃고 말았다.

하지만... 웃고 말았지만 그냥 웃고 넘길 문제가 아니었기에 가슴이 아팠다.

외모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었던가? 한사람의 인간성을 뒤집어 었을 만큼 중요한 문제였었나? 곰곰히 생각하지 않아도 정말 그랬다.

'스피드'를 본다. 키에노 리부스를 보며 정말 멋있다고 생각을 한다. 통쾌하게 악을 무찌른다. 뽀빠 이야기지만 나는 숨을 죽이며 본다.

액션영화가 늘 그렇지만 항상 근육질의 멋있는 사람이 나와서 잔인하게 생겼거나 이상하게 생긴사람을 무찌른다. 슈퍼맨이 그렇고 배트맨도, 람보도, 다이하드도, 영웅본색도.... 그런 사람에게는 미인이 뒤따르는 법이고..

이상하다. 왜? 왜 잘생긴 사람은 항상 좋은 사람이고 정의의 사자이지?

재밌게, 숨을 죽이고 보는 사이에 물들어 버린 느낌이다. 정말 길들여져 버린 느낌이다.

어릴때 만화를 볼때부터 지금은 사람들을 만나도 그 사람의 외모를 보며 그

사람의 내면의 모습마저 평가하게 되버렸다.

그래! 잘 알고 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고! 너무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잘 안되는걸 어떻게? 너무 무섭게 길들여져 버린것 같다.

남들도 나를 그렇게 평가하겠지? 나도 멋있게 하고 다녀야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광고가 더 재미있는 세상이다. TV프로그가 재미없으면 차라리 광고를 보는게 더 재미있다.

광고도 액션영화의 축소판 같다. 내가 그리던 남녀가 나오서 꿈같은 분위기를 연출하고 나를 유혹한다. 그래... 맞아.. 저거야.. 나는 잘도 넘어간다. 나는 돈만 있으면 저걸 살거라고 생각한다.

무섭다는 생각이 든다. 나의 가치관이 이렇게 쉽게 결정되어진다는 것이 두렵다. 세상이 나를 이렇게 철저히 세뇌시킬줄이야...

정말 아름다운 것이 모호한 세상이다. 나는 진정 아름다운 것은 마음으로 볼수있는 것이라고 윤리시간에 머리에 박히도록 들었으면서도 또 한쪽에서는 아름다운은 외면적인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속는 느낌이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것이 다 상술이라는 생각이 든다. 나같이 잘 속는 사람이 있으니 아주 효과적인 상술이다. 그런데...세상에... 그런 상술이 그림 영화에도 TV드라마에도 쇼프로에도 존재한다구?

맙소사...!! 일단 재밌는 영화나 쇼프로를 통해 우리를 길들인다음에 광고 하나 멋있는거 하나 때리면 나같은 사람은 기냥 넘어가는 거네? 이런....

제대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어떻게?

나도 아직 잘 모르겠다. 그만큼 내가 철저하게 길들여진걸까?

하지만 이건 알것같다. 세상을 깊이 보아야겠다는 생각들... 세상이 우리가 보고 느끼는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 놈의 사회에는 어디에도 상술은 존재하고 우리의 건전한 생각들을 길들이려 하는 거짓사랑팔림에 더 이상 넘어가서는 안돼겠다는 결심을 해본다.

이제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다.

정말 참 진실, 올바른 아름다움을 찾으려면 많이 알아야겠다. 모르는 사람은 쉽게 속아넘어가기 마련이니깐..

나는 그 친구를 다시 만나기로 결심해본다. 친구를 만나면 중요한 것은 외모가 아니라고 너는 지금 속고 있는거라고.. 정말 중요한것은 그녀의 걸모습이 아니라 그녀의 진실함이 중기는 진실의 아름다움이 아니겠냐고 말해줘야겠다.

아침이슬로 부터 슈퍼맨의 비에까지

토목공학과 88. 박 성재

캠퍼스, 축제, 미팅

시골에서 학교를 다닌 나에게 대학생이란 것은 하나의 환상이었다. 지금은 중산층이라면 의례히 자가용과 자기집을 가진 것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80년대 말에만 해도 그것은 보편적 현상은 아니었다. 더욱이 나같은 '촌담'의 사고에서는

레스토랑에서 미팅을 하고 캠퍼스를 다정스레 거니는 모습, 춤과 뽕짝파티로 매워지는 축제 이것들은 당시에 한창 시대적 분위기여던 '학생운동'만큼이나 나에게서는 다른 사람들, 무언가 나와는 격이 다른 사람들의 것이었다.

하지만 대학 현실은 채2개월이 지나기도 전에 나에게 무언가를 택할 것은 강요했다. 아니 어쩌면 나 자신이 어느 것인가를 택해야만 대학생살이 가능하다는 것을 스스로 느꼈다는 말이 더 어울릴 것이다.

80년대 말에 대학을 다녀본 사람들은 누구나가 '데모'나 '학생운동'에 대해서는 한마디씩 할 수 있다. 그것은 쉽게 말해지는 '운동권'이나 '비운동권'이나 마찬가지이다. 당시 대학문화는 '운동권'문화'라 얘기할 수 있다. 시대적 분위기에 맞춰지면서 완전한 다수의 것은 아니었을지라도 '운동권'이 주도적 위치를 점할 수 있었다.

농민의 아들이란 것이 나도 모르게 나를 끌었을까 자연스레 나는 '데모'한다는 동아리에 발을 들여놓았고 그런 문화를 나의 것으로 흡수하기 시작 했다.

뽕들 최루탄 집회

이제 나에게 학과 수업은 별의미가 없었다. 단지 시간이 허락하면 들어가는 것. 그렇다고 일부러 빠지거나 하지는 않았다.

동아리 생활이 나의 전부로 바뀌면서 모든 것이 동아리 중심이다. 세미나를 하고, 술을 먹고, 집회를 하고 교문에서 최루가스를 마시며 전경과 부딪히고, 가두에서 각목과 화염병, 뽕들이 그리고 최루가스가 던져지고 쏘아지는 곳을 휘젓고 다니며, 생각했다. 이 사회는 고칠 것이 많다. 무언가 바꾸기 위해선 순수(?) 함을 사지고 있는, 열정이 있는 대학생들이 해야할 것이 너무 많구나!

밤늦게, 새벽까지 동아리방에서 동기들과 술을 마시며 시대에 대한 고민을 나눌때 난 그런 현실에서 생활하고 있는 나 자신이 무척 행복하게 느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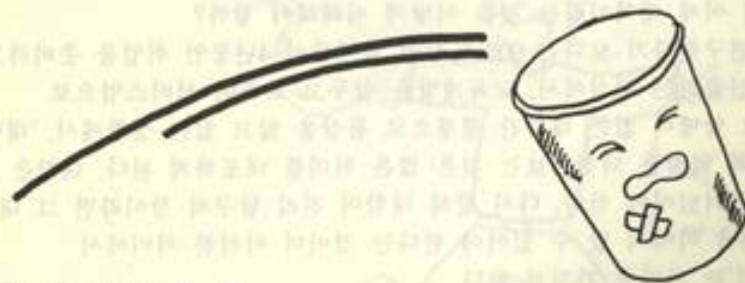
x세대, 개성,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90년대 초에 급작스레 변해갔다. 난 그 기간을 군에서 보냈기에 변화에 적응이 쉽게 될 수가 없었다. 92년 내가 대학이라는 곳엘 다시 왔을때 그때의 문화는 더이상 과거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것 또한 시대적 변화를 그대로 받아안은 것이었다.

이제 나는 그러한 현실에 다시 나를 적응시킬 필요성이 있었다. 더이상 문화의 주도권은 과거의 것으로 되돌아 갈 수 없었다. 그때는 같은 시기 복학한 선배들과 같이 현실을 비판하고 새로운 대학문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였다. 가진자들의 편협한 문화 (압구정 신촌, 로데오 거리)가 대중매체를 통해 이시대 문화의 전부로서 떠오르게 되고 그 속에서 특히 우리학교와 같이 민중의 아들 딸이 많은 학교에선 상대적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 자신은 그것을 극복에 낼 힘이 많이 부족했다. 우스게로 말해지는 '온달족' '백설공주'의 환상이 소외와의 이면에서 무의식적으로 떠오르는 대안이라고 하면 맞은 애길까

졸업을 하고도 1년이란 기간이 지났다. 그때에 내가 성공하지 못했듯 지금도 환상의 문화를 현실의 문화로 이끌어오는 것은 하지 못한다. 나는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되는 것이겠지 그것은 대학을 다니고 있고 계속 그 공간을 차지할 사람들의 몫이다. 현실의 이런 문화가 곧 '우리문화'인데 무슨 말들이 많냐고 하면 지나간 세대는 할 말이 없다. 하지만 지금은 개성없는 개성 '내용없는 문화'의 시대라 생각하는것이 지나간 세대라 생각하는 것이 지나간 세대만의 공연한 걱정일까

내 이문화



아니 왜 날아다니는 컵!

폐품이라면 단연코 쓰레기통으로!

하지만 시립대에서 종이컵은 기나긴 생명력을 가진다.

셋,넷만 모였더라면 종이컵은 필수가 되어버린 곳!

자원재활용이 한창인 이때에 우리시대인도 종이컵으로 일익을(커피+컵차기)...

지방자치제와 교육개혁

한경공학과 92 신옥영

한창 예민한 사춘기 때에 자신을 찬찬히 살펴볼 여유도 없이 입시에 매달려 온 신입생이라면 누구나 '대학'이라는 두 글자에 대한 많은 환상(?)을 가지고 있다. 매일 보는 TV드라마에서 잘생긴 남녀들이 자유롭게 캠퍼스를 누비는 장면이나 꿈, 낭만, 자유 이러한 단어들을 연상시키는 화려한 TV광고들을 보면 영어, 컴퓨터, 스포츠 등 모든 것을 들어가기만 하면 다 할수 있게 될 거라는 생각이 안들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말 이 모든 꿈들을 대학에서 실현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일까? 입학원서를 사서 이것 저것 채보기도 하고 대강 점수 맞춰서 지원한 대학...

그러나 이제 대학사회란 곳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들어온 서울시립대학교라는 곳은 과연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볼 때가 왔다. 왜냐하면 우리는 당당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생이기 때문이다.

모두들 대학은 진리탐구의 장이라고 한다. 또한 교육의 장으로서 훌륭한 인재들을 배출하는 곳이라고 한다. 그러나 한 사회의 대학은 시대의 변화와 요구에 따라 그 역할과 의미가 달라진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더라도 도시를 중심으로 늘어나는 대학과 학생들로 대학은 과포화상태에 이르고 있고 이러한 양적팽창은 소수 엘리트 집단을 만들어 내는 곳, 질 높은 학문을 연구하는 것이라는 말들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대학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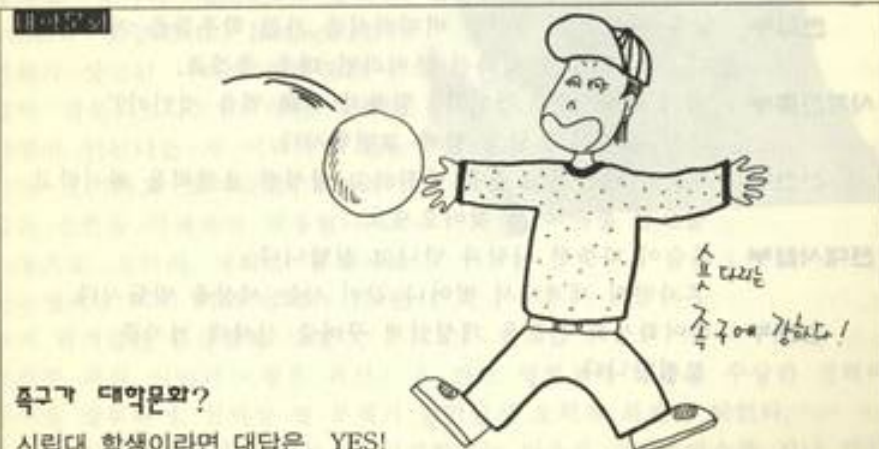
학문을 연구한다기 보다는 90%이상의 학생들이 4년동안 위업을 준비하고 사회로 진출하는 현실에서, 교육개방을 앞두고 교육이 서비스업으로 이해되고 알맹이 없는 대학간 경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 그 본연의 역할을 되짚어보는 것은 많은 의미를 내포하게 된다. 대학은 본래 사회로 열려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대학이 진리 탐구의 장이라면 그 내용은 사회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대학자치'는 의미를 가지게 한다.

대학자치란 각 대학의 특성에 맞는 학사운영과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대학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동안의 대학은 스스로의 자율능력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중앙정부의 교육정책에 따라 좌지우지되어 왔다. 물론 대학자치라는 것이 행정상의 문제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대학자치의

상은 대학이 존재하는 사회의 제반조건 속에서 찾아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올해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는 해이다. 아직까지는 지방자치제 실시가 지방자치의 실현이라는 의미보다 중앙정치의 연장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이지만, 지방자치는 국민의 참여를 근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지역에 맞는 적실행정의 실현을 기대해 볼만하다. 또한 교육개혁이 우선의 과제로 인식되고 잇는 시점에서 지방자치제의 실시는 교육의 질적 향상의 문제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대학의 경우를 보더라도 수도권지역에 대학이 편중되고 있는 현상이나 서울소재 대학과 지방소재 대학들 간에 교육의 질적인 수준에서 상당한 격차가 있음을 고려할 때 지방대학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 시대에 맞는 교육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당연하다. 특히 공립학교인 우리 학교의 발전은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그러나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의 적응력과 새 문화 창조력을 함양하여 수도 서울시와 인류사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지도자를 기르는 것'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서울시는 아직까지 예산만 들어가는 사업소 정도로 파악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에, 재정적 지원뿐만이 아니라 서울시의 명실상부한 교육기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서울시와의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우리 학교의 우선과제이다.

이제 대학은 꿈과 낭만의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 대학은 사회를 반영하고 있는 또다른 현실인 것이다. 대학사회에 인간교육의 이념과 그 기능이 제대로 자리잡히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실천을 할 때이다.



꼭가 대학문와?

시립대 학생이라면 대답은 YES!

친목을 위해, 빈 강의시간의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그리고 전농체전을 위해 농구, 축구에 못지 않은 스포츠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족구.

남성들만의 족구에서 벗어나 이젠 모든 시대인이 함께 하는 당당한 대학문화!

다른 모습, 독특한 어울림

제11대 총여학생회를 꾸려 줄 개성있는 일꾼을 찾습니다.

자격 : 서울시립대학교 재학중인 자.

요망사항 :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참신한 새내기.

참여방법

기획부 : 총여학생회 행사의 전체짜임을 구성합니다.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자랑하시는 분들을 환영합니다.

기획부 : 이제는 옷을 벗겠습니다. 여성에 대한 관심, 취업에 대한 고민, 문화에 대한 갈구를 해소하기 위해 옷을 벗겠습니다.

문화부 : 건전한 대학문화를 이끌어 갈 의식있는 남·여학우를 환영합니다.

복지부 : "죽어가는 지구를 살립니다." 오염된 대학가도 살립니다. 오염된 우리환경을 개선시키는데 동참합니다.

편집부 : 글을 사랑하고 참신한 비평의식을 가진 학우들을 기다립니다. 컴퓨터에 능숙하신 분이시면 더욱 좋겠조.

사회진출부 : '먹기 위해 일할 것인가? 일하기 위해 먹을 것인가?' 혼자 고민하지 말고 함께 고민합니다.

선전부 : 자신의 예술적 소질을 발휘하고 왕성한 표현력을 과시하고 싶으신 분은 어서 찾아오세요.

연대사업부 : 가슴이 따뜻한 사람과 만나고 싶습니다. 혼자만의 세계에서 벗어나 같이 사는 세상을 만듭니다.

신문부 : 총여학생회 신문을 개성있게 꾸며줄 신세대 기자를 모집합니다.

▶대학생활을 좀 더 폭넓게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영화는 계속된다!!

회계학과 94 김가영

영화 재미있게 보기 하나:

가위질

아무리 시대와 풍조가 변한다 해도 영화의 흥행에 관한 다음 두 매직원도의 매력에는 변함이 없다. '섹스'와 '폭력'이 바로 그것.

각국의 검열기구와 제작사 사이에는 이런 금지된 기쁨의 묘사를 두고 영화사 초기부터 밀고 당기는 전쟁이 존재해왔다. '심의등급에 따라 흥행수익에 엄청난 타격을 주기 때문'이라는 미국과 '동방예의지국에서 무슨 예술'이라는 입장차이는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검열관이 몸소 가위를 들고 나서서 커팅을 하는 일은 없다.

올해 심의상 화제가 된 영화로는 '데미지(Damage)'가 있었다. 몇년 전부터 상영허가를 둘러싸고 말이 많았던 '데미지'가 작년에 수입됐다. 몇번씩 공연윤리위원회에 거부당하고 급기야 감독까지 찾아와, '원초적 본능(Basic Instinct)'같은 영화가 상영된 나라에서 불륜은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지적한 영화가 상영이 안된다는 게 이해가지 않는 다며 포기하고 돌아갔던 그 영화가 많은 장면을 삭제하여 개봉됐다. 그 소동으로 오히려 영화는 흥행에도 성공했지만 이미 거의 걸레가 된 필름에 관객들은 씁쓸함을 느꼈다.

끔찍한 피의 이야기 <펄프 픽션>은 칸느 영화제에 대상을 수상한 경력이 위력을 발휘하여, 심의상 별 문제가 없었던게 오히려 화제가 되었다. 팀 버튼의 '크리스마스 악몽'은 기괴하다는 이유로 크리스마스를 지나 개봉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까지 벌어졌는데, '해적'애기가 나오면 이젠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온보현과 지존과의 만행이 영화사를 주저앉게 한 최초의 사례가 되었다. 잇따라 발생하는 엽기적 강력사건으로 신경이 곤두선 당국이 액션영화 '해적'에 과잉반응을 보인 것이다. 법정 싸움으로까지 비화됐으



나, 이미 망해 없어진 영화사는 싸울 수도 없게 된 것이다.

지금, 남성의 누드는 여성의 누드보다 왜 더 귀중(?)한가, 폭력은 섹스보다 교육상 왜 더 건전(?)한가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다. 싸울 기준조차 모호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공윤위나 등급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 또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검열관의 임의대로의 기준으로 필름을 자를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명시적인 기준으로 등급을 매겨야 하는 것이다.

영화 재미있게 보기 :

컬트

컬트 감독, 컬트 영화, 최근에 어떤 영화는 아예 '이것이 컬트다!' 라고 광고하기까지 이르렀다. 조금 피딱하게 만들면 컬트인 것 같은, 마치 컬트라는 장르가 있는 것처럼 무분별하게 쓰이고 있지만, 컬트(cult)의 본래 의미는 '이단, 숭배'라는 단어 뜻처럼, 아무도 예상치 않게 관객들이 영화를 지지하는 경우이다.

컬트의 시초가 된 영화는 '픽처 호러 무비쇼(Picture Horer Movie Show)', 라는 영화로, 당시 평론가들의 엄청난 혹평으로 극장에서 일주일만에 내려오고 만 불운의 작품이었다. 영화가 극장에서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평론가들은 졸작의 예를 들때면 제일 먼저 '픽처 호러 무비쇼'를 들곤 했다. 비디오가 없었던 당시, 관객들은 도대체 '픽처 호러 무비쇼'라는 영화가 어떻게 만들어졌길래 그렇게 혹평을 받는 걸까 호기심을 갖기 시작했고, 어느새 '픽처 호러 무비쇼'는 대학축제 때 상영되는 단골 명사가 되어 버렸다.

'웨임(Fame)'이라는 영화에서는 학생들이 '픽처 호러 무비쇼'를 보며 열광하는 장면까지 나오게 되었고, 기어이 뒤늦게 다시금 극장에 올려진 '픽처 호러 무비쇼'는 대히트를 기록했다. 그러니까, 컬트 영화 한편이 만들어지면, 몇 십년동안 한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신념있는 극장과 소신있는 다수의 관객들이 존재해야 한다는 얘긴데, 아직은 컬트 상업주의 밖에 존재하지 않는 우리 영화계의 현주소를 보며 씁쓸함을 느꼈다. '세계화! 세계화!' 하는데, "아! 그 영화 한국에서 컬트영화 됐잖아.", "아! 그 영화 한국 가면 극장에서 볼 수 있잖아."하는 소리 듣는 날이 하루 빨리 왔으면 좋겠다!

영화 재미있게 보기 :

관심

원고 청탁을 받고 어떤 얘기를 들려주면 좋을까 고심했습니다. 영화평이나 좋은 영화 몇작품 소개보다는, 이 신비스러운 매체로 여러분의 관심을 끌고

싶었습니다. 영화는 흔히 오락거리나 구경거리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에겐 영화가 삶 자체, 혹은 죽음을 이겨내기 위한 치열한 무대일 수도 있습니다.

데이빗 린 같은 위대한 영화작가가 영화작업 현장에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접할 때, 존 휴스턴이 죽기전 마치 자신의 죽음을 예감한 듯이 만든 영화 '더블런 사람들'같은 영화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평생을 영화라는 허구를 만들며 보내면서 그들은 허구 속에 갇힌 삶의 진실을 찾다가 마침내 영화로 유언을 남기며 생을 마감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내일 죽더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한 스피노자, 그리고 죽은 나무가지에 매일 물을 주어 살려낸 승려의 이야기로 시작되는 타르코프스키의 '희생'에 프레데릭 벡은 '나무를 심는 사람'이란 동화적 애니메이션으로 답신을 보냅니다. 물감이나 파스텔의 터치가 살아나지 않는 투명판 비닐판(cell)에 화공약품을 입혀 작업하느라 그는 한쪽 눈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 댓가로 우리는 라벤다 향수보다 더 감미롭고 부드러운 향취가 풍기는 영상으로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도토리를 고르는 양치기를 지켜보면서 '그와 함께 있으니 평화로웠다.' 라고 한 한 화자의 고백은 이 놀라운 애니메이션을 보는 관객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런 영화도 있구나!"라는 약간의 놀라움에서 시작된 영화보기는 "아, 영화는 이래서 만들 가치도 있고 볼 가치도 있구나!"라는 깨달음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대학생생활을 시작하려는 여러분! 지성인의 용기로 이 벅찬 감동을 우리 함께 했으면 합니다

오지 않는 봄

음악학과 92 장모희

시에 대하여 무슨 평을 하겠다고 혹은 문학적으로 어떠한지 해석하기 위해 이 글을 쓰는 것은 아니다. 내겐 그런 재주가 없을 뿐더러, 의도조차 없으니까. 다만 시를 통해 느낀 솔직한 느낌과 생각을 말하고 싶을 뿐이다.

내가 처음으로 기형도의 시를 접한 때는 대학 1년 새내기 시절이었다. 모든 것이 새롭고 흥미로우며 설렘으로 가득했던 그 시절, 나는 문학동아리에 가입하였다. 얼마 뒤 동아리 방 창가에 창호지 두 장이 붙었는데, 그 창호지엔 이성복의 시 '1952년'과 기형도의 시 '대학시절'이 적혀있었다. 내용은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무언가 비극적 분위기를 풍기는 데에 매료되어 한참을 창가에 서 있었다.

1952년

이성복

그해 겨울이 지나고 여름이 시작되어도
봄은 오지 않았다 벼수아니루는
재 꽃이 피기 전에 아주 작은 열매를 맺고
불임(不妊)의 살구나무는 시들어 갔다.
소년들의 성기(性器)에는 파랗게 익은 열매가 흐르고
척사들은 아프리카까지 이민을 떠났다 우리는
유와 기는 친구들에게 술 잔잔 얻어 먹거나 이자 대전 때 남방
으로 정통 간 삼촌에게서
뜻밖의 편지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어떤
놀라움도 우리를 무기력과 불감증으로부터
떠라내기 못했고 다만, 그 전쟁에 비해 약간 더 화려하게 절망
적인 우리의 순간을
수식했을 뿐 아무 것도 추억되지 않았다
어머니는 살아 있고 여부는 발발하지만
그들의 기쁨은 소리 없이 내 구두발에 짓이겨
지거나 이미 파리재 밑에 으깨어져 있었고
춘화(春花)를 볼 때마다 부패한 채 떠올라 왔다
그해 겨울이 지나고 여름이 시작되어도
우리는 봄이 아닌 춘리와 사이비 화살과
싸우고 있었다 오지 않는 봄이어야 했기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감옥으로 자진해 갔다

대학시절

기형도

나무외자 밑에는 버려진 책들이 가둬있었다
은백양의 숲은 깊고 아름다웠지만
그곳에서는 나뭇잎조차 무기로 사용되었다
그 아름다운 숲에 이르면 청년들은 각오한 듯
눈을 감고 지나갔다, 불주게 위에서
나는 불라톤을 읽었다, 그때마다 풍성이 솟았다
책판질이 오면 친구들은 감옥과 군대로 옮겨졌고
시를 쓰면 주제는 자신이 기관차라고 털어놓았다
전망하는 교수가 있었으나 그분은 원래 말이 없었다
몇번의 경음이 지나자 나는 쇠꼬리가 되었다
그리고 불행이었다, 대학을 떠나기가 두려웠다

쏟아지는 무수한 햇살에 환하게 비치는 창호지에서 읽었던 그 시에 대한 기억은 새롭게 시작하는 새내기 봄의 북적거림과 열정 속에 급새 묻혀버리고 말았다. 그러다가 3학년 가을, 동아리 문학제에 창작극 '겨울 관화'를 올리면서 나는 다시 한번 기형도를 만날 수 있었다. 문학제는 그의 연작시집이었던 '겨울관화'에서 제목을 찾았을 뿐 아니라 그의 삶과 시 세계를 찾아 나선 여행과 같았다. 다시 만난 그 시 '대학시절'은 처음 접했을 때와는 또다른 모습으로 다가왔다. 마냥 설레이던 새내기 티를 벗고 자신과 학교, 그리고 민족에 대한 진지한 고민으로 가득했던 2학년을 지내고, 나 역시 어쩔 수 없는 내면적 모순과 갈등으로 체념하던 3학년도 거의 살아낸 터였기에... 그제서야 '대학시절'은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슬픔이 된 것이다.

대학 4년은 꼭 자연의 사계절 같다. 푸릇한 새싹이 돋는 새내기 시절의 봄, 무더위 그리고 폭풍우와 치열하게 싸우는 2학년의 여름, 그리고 박차를 가해 풍성한 가을걷이를 위해 땀 흘리는 3학년의 가을, 그렇게 고생해서 맺은 결실로 마음 따뜻하게 살라내고 또 다시 희망을 준비하는 4학년의 겨울. 그러나 봄의 언덕을 잘못 들어서거나 혹은 여름과 가을을 헛차게 살아내지 못하고 주저앉는다면 4학년의 겨울은 마냥 황량하고 쓸쓸한 찬바람만 가슴에 들이칠 것이다. '대학을 떠나기가 두려웠다'고 말하는 시인의 아픔처럼...

나무외자 밑에는 버려진 책들이 가둬있었다

에서 버려진 책은 누구의 것인가? 책을 무기로 삼고 공부해야 할 학생들은 왜 책을 버렸을까? 누가 드들의 책을 버리게 한 것일까?

손택양의 삶은 깊고 아름다웠지만
그곳에서는 나뭇잎조차 무기로 사용되었다

나뭇잎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 하찮은 나뭇잎조차
무기로 사용해야 하는 절박감과 무기로 사용되어야 했던 비참함을 느낄 수
있다.

그 아름다운 삶에 이르면 청년들은 각오한 듯
눈을 감고 지나갔다, 물주게 되어서
나는 플라톤을 읽었다, 그때마다 주성이 울었다

수많은 청년들이 거리로 뛰어들고 총성이 울릴때 플라톤같은 책이나 읽을
수 밖에 없었던 시인의 괴로움은 무엇일까?

백련장이 오면 친구들은 갈수록 군대로 들어갔고
시를 쓰면 주제는 자신이 기관차이라고 떨어놓았다
문학하는 교수가 있었으나 그분은 천재 말이 없었다
몇 번의 겨울이 지나자 나는 외톨리가 되었다
그리고 죽음이었다, 대학을 떠나기가 두려웠다

그렇게 지낸 시인은 결국 대학을 떠나기가 두려웠다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다. 그 두려움의 정체는 또 무엇인지...

기형도는 1960년 연평에서 태어나 1989년 서론도 채우기 전 우리 곁을 떠
나간 시인이다. 이른 봄 3월 7일 새벽 3시 30분경, 종로 2가 부근의 한 극장
안에서 죽었다는 신문 보도가 있었다. 중앙일보 기자로 일하고 있던 때였다.

시인 기형도의 젊은 시절은 1980년대의 괴로움과 절망의 역사 소개 있었다. 그
시대의 젊은 이들이 대개 그러했듯이 그는 글을 쓰지 못하게 만드는 현실
속에서 거리로 뛰어나가 싸우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모른 채 시만 쓰고 있을
수도 없는 심정을 시작 노트에서

오랫동안 글을 쓰지 못했던 때가 있었다.
이 땅의 날씨가 나쁘고 나는 그 날씨를 견디지 못했다.

고 고백하고 있다.

기형도의 유년시절은 무척이나 가난했다. 그 시에 의하면 '열 살 때' 아버지
가 중병으로 쓰러지고, 큰 누나는 공장엔 다녔고, 어머니는 콩나물이나 열무
장사를 했던 것 같다. 그러한 환경에서 당할 수 있는 많은 상처는 치유되지
못한 채 기형도의 온 삶의 정서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시 곳곳에

서 유년 시절의 추억이 드러나 있고, 또 그 속에서 해매이는 시인을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어떤 이는 '내적 유배지'에 유배된 것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그것이 그를 현실로 뛰어들이 못하게 했다고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는 현실과 유년의 추억 사이에서, 그리고 시를 쓸 수 없게 하는 현실과 시
를 쓰고 싶은 욕망 사이에서 갈등한 것 같다.

우리시대의 사랑이라는 조성기씨의 소설에서 보면 입 속에 매달린 검은 잎
'검은 허' '타버린 허', 불의 앞에서도 침묵할 수밖에 어땀는 허라고 보고 있
다. 그건 이한열 같은 투사들의 허와대조되는 것이다.

그 해 여름 땅바닥은 책과 검은 잎들을 질질 끌고 다녔다

에서의 '검은 잎'은 아마도 광주사태와 같은 구조적인 폭력 앞에서 휴지처럼
무기력한 책갈피들을 의미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사람들은 강제의 행위에 악착같이 매달렸고
백색의 자방 기복 검은 잎들은 나무였다

에서의 '검은 잎'은 검은 만장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가슴
아프게 읽은 마지막 구절

내 잎 속에 악착같이 매달린 검은 잎이 나는 무렵다

에선 不義 앞에서 치목학 수 밖에 없는 시인의 내면적 고통 느낄 수 있다.
불의와 싸우기 위해선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두려움으로 인해 비굴하게 살
아갈 수밖에 없는 삶을 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시인을 괴롭힌 다
른 하나의 이유일 것이다.

기형도의 시는 대부분 비극적이며 절망적이다. '안개' '조치원' '죽은 구름' '밤눈' '종이달' '위험한 家系' 등의 시 곳곳에서 어둡고 힘없고 쓸쓸한 정서
와 시어들을 만날 수 있다. 유년 시절의 상처 때문이기도 하고, 어두운 현실,
또 그러한 현실 속에서 자신이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두려운 탓이기도
하다. 그가 비록 추앙받을 만큼 훌륭한 삶을 살지는 못했다고, 아니 오히려
비난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리고 많은 것을 이루지도
얻지도 못했지만, 그렇기에 더욱 더 그의 시와 삶은 젊은 우리들에게 많은
질문과 과제를 던진다. 바로 우리의 자화상일 수 있기에...

중!

· 편집부하 ~

한 일은 비록 많았지만 강하게 말하곤...

새내기 여러분들의 입장은 주카(?) 도저히

크리고 우리 94년 생애나에 살아갑니다

만화는 22면서

총에 집부들이 주체파를 잊고 - 연대 사연부장 전호 92 김순미
입는 것은 처절하게 노렸다!!
특히 좀더 이쁘게 그려달라고 채적권을

마구 뒤엎은 편집부장은 이순간부터
증오해 버리고 만 거야!

- 선정부장 생애나디자인 93 조영남 -

잘 쓰지도 못하는 글을 쓰느라 X바아졌다.

우리는 슈퍼맨이 아니다. 글을 못쓰는 것으로

내 자유를 어찌할래? - 차차

예고 -
각자 일 열심히 하느라 수고 하셨습니다라 총여정부를.

이제 목록대로 되... 이. 장 환조 92 영화

자신에게 사합니다!

대장정인간
(같이 밤하늘
한글 92 조영남 동영)

· 주옥 같은 글을 위해 잘못을 나뉘(?), 제비라 태수의 강렬한 애원을
뒤로 했던 아픔! 이 모든걸 여기에 남깁니다.

- 북지부장 포목 94 당 혜옥 -

중중!!

아! 드디어 끝났다. (누나 하난은?)

편집부장이 너무 고생했다. (애력실...)

어제 잠을 못 자고 있다. (반사며 한을 말하야)

문득도 해야겠다. (옛는 생각하셔도... 말했지?)

아! 이 부도람. (누나 하난 말)

상하이 선배님 수고하셨습니다 !!!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세가지 밖에 없다. - 부장 정호 (환조 91 일)

도피하거나 - 정책기획부장 임 경화 (전축 92)

방관하거나

뛰어드는 것!

뛰어드는 동기 후배들 앞에
방관하는 이가 더만려하여.....

총여의 강등화. 왜냐하면 차후부는

총여의 머리가 나.

정말 기다렸습니. P5학번은.

15년은 새세기와 함께 어난히 살아야

선배들은 중 선배나겠네

학우부 회의 (14) 행정각하내기.

편집부장의 재직일이 끝났다.

너 마음과 머리는 지명이 동였다.

아래 휘파라겠다.

편집부장 수고한다. 만세이 만세이

만만세이!!

- 문화부장 성미 -

순하라 93

한창동안 험뽕거린것같은데 작업을 마치고
나서보니 너무나 부끄럽다.
어려운 용어를 표박박 써가며 풍나게 만들기보단
조금은 유치하게, 수습게 읽을 수 있도록 꾸몄다.
이것은 기획의도 이면서 나의 모자람이기도 하다.
300타수를 자랑하며 부지런히 뛰어준 성미와
사슴박힌 편집능력을 전수(?) 해 주신 구윤희
선배님께 감사드립니다. - 편집부장 환경조각 93 송호정 -